

## 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리플릿: 헤이세이 분화

1990년부터 1995년까지 계속된 헤이세이 분화는 시마바라반도 화산 부근에 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통감하게 해 줍니다. 이 재해 유구는 돌아가신 분들이나 가옥을 기리고, 야기된 피해로부터 얻은 많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.

### 가마다스 돔

가마다스 돔은 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거점 시설로서 과학·문화·역사가 하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. 안에는 운젠다케 재해기념관이 있으며, 이곳은 수세기에 걸쳐 반도 주민들이 경험해 온 자연재해를 소개하기 위해 체험적인 전시와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### 토석류 재해 가옥 보존 공원

이 공원에는 헤이세이 분화에 의한 토석류로 파괴된 가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. 가옥의 대부분이 밀려든 토사 아래에 거의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

### 구 오노코바초등학교 재해 교사

구름 모양의 뜨거운 화산재가 이 초등학교 대부분을 태웠고 일부를 녹여 버렸습니다. 이 유구는 재해를 기억하기 위해 당시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. 화쇄류에 탄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재생되어 현재는 예전에 학교 운동장이었던 곳에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.

### 헤이세이신잔 네이처 센터

이 과학학습시설은 헤이세이 분화가 낳은 거대한 산 헤이세이신잔(1,483m)에서 불과 2.5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. 이곳에서 보이는 전망은 정말 훌륭하며, 산책로에서는 산기슭에서 자연환경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